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화) 밤 11:30에 드립니다. 허리띠를 준비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송구영신 예배 후에 연령별사랑방 진급을 축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 성탄 예물은 따밭 공동체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 공동체 직원 시무식은 2일(목) 오후 12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성서일기 범위가 말라기서로 바뀌었습니다. 새해부터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그루터기사랑방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정연갑 · 이윤순 집사 가정 (감사)

신행(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52 호

2024년 12월 2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따뜻한 밥차를 다녀와서,

성탄절이 지난 27일 금요일, 정재훈 목사님과 함께 “따뜻한 밥차 (줄여서 따밥)” 비영리단체에 갔습니다. 작년에도 사랑방에서 선물을 전달한 적이 있었던 곳이라 이야기는 들었었지만, 방문은 처음이어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들을 차에 싣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남으로 출발했습니다. 커다란 성남시청 근처 단지에 도착하자, 큼지막한 로고가 그려진 노오란 색깔의 택배차가 서있었고, 그 옆에 본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정진애 목사님을 만나 인사하며 선물을 옮겼습니다. 목사님은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여서 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추운 공기를 피해 안으로 들어가니 단정하게 정리된 실내에서 가장 먼저 [도시락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종이 위에 큼지막한 글씨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자유롭게 가져가세요”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를 지나쳐 가운데에 놓인 탁상 위에 선물들을 올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소개를 주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카페로 이동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함께 따밥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목사님 두 분이 더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 복지, 비영리 단체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들을 이어가지만, 주일이나 공휴일에는 쉬는 경우가 많아 빈틈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필요에 응하는 마음으로 5개 교회가 함께 세상을 향한 섬김을 이어가는 열매가 바로 따밥이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들의 목사님과 지체들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과제들이 있었음에도, 그 소명에 함께 동참하는 선택을 했음을 무척이나 담담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카페에서 일어나 점심식사를 하러 다시 따밥에 들리니, 노숙자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것저것 손에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곤 곧 떠나셨습니다. 보아하니 모두가 그 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진 않았지만, 각각 노숙자와의 만남속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깊은 스토리가 있었음을 짐
선교와 섬김

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에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이 활동에 갖든 선의를 깨닫고 고마워하는 태도로 바뀐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 분을 보내고 나서 현장실천 중인 신대원생 한 분과, 일을 도와주신 어르신 한 분, 젊은 청년 한 명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 청년은 스스로 자원해서 매주 금요일과 주일에 2시간 가깝게 걸려 찾아와 일을 도와주는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정말 대단해보였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면서는 함께 연합한 교회들의 목사님이 끈끈한 연결 고리로 묶여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성격과 방식은 다를지라도, 믿음음 바탕으로 함께 같은 따밥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설교를 얼마나 자주 부탁했느니 하는 우스갯소리를 들어보니,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이 깔려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 할 텐데- 라는 우려와 희망이 섞인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사람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일꾼인지, 따밥을 하면서 깊이 체감했다는 말은 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각 목사님 차량에 쌀과 생필품을 수십 개씩 날라 놓았습니다. 마침 이곳의 목사님들도 축구 팀들을 꾸릴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허리가 불편하심에도 20kg짜리 쌀자루를 일일이 직접 나르시더니 전달해줄 곳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다른 교인이나 교역자가 없던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 일처럼 챙기시는 모습들을 보고 이유모를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 따밥은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또다른 형태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 같은 노력의 발자국들에 대해 알게 되고, 들어보고, 조금이나마 동참하게 되어서 기뻐던 한 때였습니다. 혹 그곳에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조금이나마 그 분위기가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사랑방에서 전달한 성탄의 기쁨은, 그곳에서 많은 지체들에게 따뜻함이 되어줄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
<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

< 수요기도회 >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08, 85 / 190

기도 : 윤호중 집사

성경 : 스가랴서 12장

제목 :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키는 회개

1. 내용: 그 날에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다.(What)

<문단구분>

1~9절 주님의 경고의 말씀

10~14절 회개의 영이 오시면

2. 의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Why)

- 1) 로마의 박해 이전에 이미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
- 2) 모든 고통을 이기고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
- 3)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3. 적용: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자. (How)

- 1)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 2)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자.
- 3) 먼저 베푸신 은혜는 각 사람에게 회개를 불러 일으킨다.

사랑방지 원고 꿀팁!

안녕하세요. 이어직 집사입니다. 제가 사랑방도서출판 사역공동체에 편집담당으로 소속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뜻은 사랑방지 35화 올해 36호가 저의 손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이충환 집사님, 이재신 집사님, 노미현 사모님, 최기찬 전도사님, 전경희 집사님께서 고생하셨는데 이제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따로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랑방지 36호는 이재신 집사님께서 개인사가 겹쳐서 같이 새벽 3시~4시까지 작업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랑방 각 기관 또는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시지만 오늘은 도서출판공동체에서 열심히 하셨던 부분들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사랑방지에 어떤 분은 사진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분은 작게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법

1. 원고를 페이지 가득 채운다 - 보통 지체들의 삶의 원고를 보면 1~2페이지를 가장 많이 쓰십니다. 그중 1페이지1/2를 가장 많이 쓰십니다. 그럴 경우 빈칸을 채우기 위해 1/2페이지에 들어가는 사진을 골라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1페이지 또는 2페이지 가득 가깝게 주신다면 큰 사진이나 작은 사진 2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사진을 많이 보낸다 - 본인 원고에 최소 1~2장의 사진이 들어가면 끝이 아닙니다. 사랑방지 앞에 4~8장, 뒤에 최소 4장이 추가로 들어가고, 마지막 사랑방소식에 20장에 가까운 사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항상 사진이 부족하죠. 그러니 꼭 많은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만큼 많은 기회를 얻게 되십니다.

이외에도 원고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사진이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밖에서 오랜생활을 하다보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풍경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방공동체 여러분 매년 올해가 가장 멋지고 가장 이쁜 모습을 책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기록들이 다시 40년 뒤, 100년 뒤에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도록 저도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잘 기록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내사랑방 이어직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요한복음 4 : 24

20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이사야서 57 : 15

70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교

골로새서 2 : 12-17

먼저 그 나라와(45) 그루터기사랑방

“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 정재훈 목사

설교자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12

438(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석용범 박영선 / 봉헌위원 : 정혜라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에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골로새 교회의 문제.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찾아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
을 가르치며 복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
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과 외양을
꾸미는 자들의 가르침이 문제였습니다.

해답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일관된 주장은 복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
울의 대답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입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차
원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음. 불안은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그리스도의 평안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
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읍시다. 그것이 거룩이며 그리스도인이 목표
로 해야 하는 바입니다. 성탄 절기의 감동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이승호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멧쟁이학교 >

사이판 졸업여행 후기

이번 사이판 여행은 매일이 특별한 추억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마나가하섬(군함도)입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섬으로, 모래는 부드럽고 바다는 맑았습니다. 햇살과 바닷바람을 느끼며 하얀 모래사장을 걷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나가하섬 외에도 사이판의 다른 해변들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석처럼 푸른 (Lau Lau Bay)부터 원시적인 분위기를 가진 (Bird Island)까지, 어느 곳이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해변에 서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정이안 멧쟁이가 어디가든 코코넛을 찾고 까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달콤하고 상쾌한 코코넛 주스는 한 모금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이판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별들이었고, 그 고요하고 깊은 밤하늘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번 여행은 도시의 빠른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이판의 아름다운 풍경과 조용한 분위기, 여유로운

삶의 리듬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여행을 떠올릴 때마다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모든 일정과 계획을 도와주신 사이판에 있는 천목사님 가정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진의 학생

여진이의 고마움이 담긴 2024년 마무리

한 해를 정리하며 라는 주제로 코이노니아 글을 요청 받았다. 요청을 받고 글을 쓰는 데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나의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다 학기말 평가서를 쓰는 시기까지 오게 되었다. 강제적으로 한 해를 정리하던 중 이번 학기 나의 학기말 평가서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았다. 도움, 덕분에, 고마움 등등이었다. 이번 한 해 나는 5학년으로서, 회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맡았다.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막연히 해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런 순간 막막했던 나를 이끌어준 것은 누군가의 수고했다는 격려, 그럼에도 잘했다고 해주는 한 마디의 말이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내가 막막할 때 선뜻 도움을 주었던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다. 나의 걱정거리를 대수롭지 않게 만들어주어서 고맙다. 또 항상 나를 격려해주고 따라주었던 후배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다. 모두 큰 힘이 되어주어서, 부족한 나를 믿고 따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마지막으로 선배들, 6학년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다. 언제부터인지 너무 많이 의지했던 것 같다. 너무 많이 받기만 했던 것 같다. 항상 힘들 때 찾아갈 수 있게 그 자리에 있어 주어서 고맙웠다. 나의 한 해는 도움이었다. 혼자서는 부족했던 내가 많은 도움으로 채워졌던 한 해였다. 모두 고마워. 진심으로.

고여진 학생

2024년을 돌아보며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남기고, 자연스레 한 해를 뒤 돌아보게 된다. 직장에서는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다. 퇴직이 가까워 옴에 따라 개발과 사원들을 교육시키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큰 아들 예찬이가 스위스에서 졸업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 가정이 온전한 합체가 이루어졌다. 좁은 집이 터져 나갈 것 같지만 예찬이가 등직한 어른이 되어서 돌아와 내심 너무 흐뭇하고 기쁘다. 둘째 아들 예영이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 착하디 착한 예영이의 도전 과정이 즐겁기를 바라고 미래에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한다. 셋째 딸 예나는 너무나도 바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다.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딸을 생각하면 대견하고 사랑스럽다. 아내와 처제는 금년에도 사랑방공동체 학교를 위해서 교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금년 공동체의 표어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우리 그루터기에서의 생활은 공동 창고를 짓기 위해 마음을 함께 모았고 조그만 창고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루터기 식구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은 기도가 필요했다. 조기에 병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 없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권목사님 가정이 선교지로 가면서 빈집에 들어올 식구를 위해서 마음 졸이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었다.

사랑방공동체에서는 40주년 동안 함께 동행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여름공동체생활 숙소에서 나눈 교제와 날씨는 비록 쌀쌀하고 공동체내에서 가졌던 자연예배였지만 기억에 남는다. 사랑방공동체가 있기까지 공로가 있는 분들과 감사해야 할 분들에게 감사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며칠이 지나면 2024년이 지나간다. 2024년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다. 2025년은 더 나은 주님 안에 있는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랑방공동체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한다. 그루터기사랑방 박태규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

인도 : 이어진 전도사
찬송 : 104장, 105장
성경 : 누가복음 2장 30-32절
말씀 : 계시의 빛, 주님의 영광.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우-러 전쟁의 종식을 위한 기도>
미국에서 우-러 전쟁에 참여한 북한군 사상자가 천 명 이상임을 발표했습니다. 생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살하거나 서로를 처형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러 군인들도 이미 수십만 이상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권력에 휘둘린 생명들이 국가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소모품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땅에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따뜻한 밥차>
올해에도 선물을 전달하는 '따뜻한 밥차(따밥)'은 노숙자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5개 교회가 힘을 합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시락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돌보는 귀한 노력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또한 뜻있는 일꾼들이 더러 합류하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에 기쁨과 감사를
 - 2)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기쁨으로 성탄 전야예배를 마치고 성탄축하예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 종무식 때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성장한 부분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무식 때 까지 쉬는 기간이지만 일상이 쉴 수 없듯이 공동생활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